



“여성과학자 지원 · 육성이 나의 사명!”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로 여성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이 기여하는 만큼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논문에서 여성이 기여하는 비율은 18.3%, 특허 출원 기여율은 28.3%, 특허 등록 기여율은 19%를 차지하지만 전체 채용은 이 기여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화여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한다. “이젠 채용 목표제가 아닌 고용 목표제를 도입할 때이다. 신규 채용인원은 매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표를 높게 잡아도 과기계의 여성 진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고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영국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이 전체의 2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과기인 고용비율이 11% 남짓이므로 영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2014년까지 신규고용의 절반을 여성으로 뽑아야한다는 게 전 센터장의 설명이다.

“영국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이 25%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여성인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과기계에서 여성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기여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수직으

‘여성과기인 고용목표제’ 도입해야

전 센터장은 소위 잘 나가는 여성과학기술인 중의 한명이다. 천연물에서 신약후보물질을 추출하고 그 구조를 분석해 조혈모세포촉진인자, 혈소판촉진인자, 골다공증치료제 등의 굵직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지난 2002년에는 그녀의 연구결과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30대 우수연구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국내 생화학계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제법 무거운 과학자인 셈이다.

능력 있는 과학자로 인정을 받는 그녀가 새삼스레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미래가 여성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바로 여성과기인의 사기를 북돋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초기지인 셈이다. 전 센터장은 이 지원센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센터의 육성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그녀는 센터장에 취임한 이후엔 화학과 교수의 명함보다 지원센터장의 명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직접 홍보에 나설 정도다.

센터가 출범한 것은 지난 2월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

성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생활교육교실 강사를 배출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전 센터장은 가정에 안주하고 있는 고급여성인력을 사회로 끌어내 기여하도록 하는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및 퇴직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신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중단되는 고급 여성인력은 사회적으로도 손해라는 게 전 센터장의 신념이다.

“한 여성인력을 키우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들 여성이 육아 때문에 그 캐리어를 포기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모성애를 포기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다.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경력이 중단된 여성과학자가 다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공학의 기본 지식을 가진 여성인력을 과학관 큐레이터나, 과학마술사, 과학저술가 등의 새로운 직업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이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과학문화 저변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것이다.

전 센터장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에 참가했던 한 가정주부를 예로 들며, 얼마나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지를 설명했다. 이 참가자는 이학 박사까지 받았으나 출산과 육아 때문에 공부를 잠시 중단한 케이스이다.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육아로 인한 공백이 너무 컸기에 그녀는 가정주부로서 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도 자녀의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아이를 보다 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정보를 찾던 이 여성은 이화여대가 운영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와이즈에 참가했고, 이 인연으로 다시 예전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게 된 것이다. 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교육을 받은 이 여성은 와이즈 센터가 운영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력중단 고급인력 재진입 프로그램 운영

물론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비단 과학교육 강사 육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융공학과정, 특허로드맵 과정, 리더십 과정, 영어를 통한 논리적 사고과정, 프로젝트 메니

지먼트 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여성과학자들에게 취약한 리더십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공학의 경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가에선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국내엔 관련 전문가가 드물다. 국내 여성수학자를 중심으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영어를 통한 논리적 사고 교육 프로그램도 전 센터장이 자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고급영어를 이용한 글쓰기 교육을 통해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재교육을 통해 유휴 고급 여성인력을 IT, BT, NT 등 첨단 미래 과학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여성인력 활용은 아직 기대치 이하라고 전 센터장은 평가한다.

“국공립기관 99개 중 여성과학기술인이 30명 이상 되는 곳은 단 21곳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들 기관의 ‘여성과학기술담당관’ 중 여성은 단 3명뿐이다. 이런 분위기가 개선되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공립기관의 실정이 이 지경이니 다른 기관 사정이야 볼 것도 없다. 전 센터장은 여성과기인력의 활용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들 99개 국공립기관의 여성과기인력 활용 순위를 매겨 그 성적표를 각 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체 과기인력에서 여성의 비율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고위직의 여성인력 비율이다. 식약청의 경우 인력의 40%가 여성이지만 고위직의 여성비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센터가 리더십이나 논리력 재교육을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센터장은 경력이 중단된 여성의 재진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문제가 여성 과학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여성부 등을 향해 여성과학자를 위한 육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센터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한해서는 물러설 마음이 없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타 이틀이 함께 할 것이다. ㉔

글_유지영 과학신문 기자 mam04@hanmail.net